

남아공, 대아시아 수출비중 증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23.5% 상승한 210억 달러를 기록하여 23%의 상승세를 나타내었던 2003년에 이어 수출호조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금년 상반기 상품수지는 1968년 이후 처음으로 2억 5천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었고 경상수지는 2002년 6억 달러 흑자에서 2003년은 15억 달러 적자로 반전, 금년에는 27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음. 2002년 후반부터 란드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임.

□ 지속적인 란드화 강세

- 란드화의 평균 대미달러 환율은 2002년의 10.54에서 2003년에는 7.56으로 28.3% 절상되었으며, 2004년 상반기 중에는 6.70으로 11.13% 추가 절상되었음.
- 동국 통화위원회는 8월 11일 REPO¹⁾ 금리를 7.50으로 0.5% 포인트 인하하여 란드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으나 2004년 말 대미 평균 환율은 6.75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란드화 강세 원인은 동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광물자원의 국제가 상승, 낮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 등임.

1) 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으로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 또는 매도한다는 조건의 채권.

- 정부가 1995년 자동차 산업 개발 프로그램³⁾(MIDP)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추세를 보여오던 승용차는 2003년에 전년 대비 1.1% 증가한 12만 6,661대 수출에 그쳐 1995년 이후의 평균 수출 신장률 37%를 크게 하회함.
- 석탄 등 광물류도 수출량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환율하락으로 인해 2003년 수출액은 10%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6.8% 감소하였음.

□ 수입은 급증세

- 금년 상반기 수입은 란드화 절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13.4% 증가한 213억 달러를 기록하여 2억 5천만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수입 신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운송기기류 수입이 27억 4,100만 달러로 58% 증가하였고 주택수요가 증가한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일반기계류도 12.9% 증가하였음.
- 광물류 수입은 금년 상반기 수입이 46% 이상 급증한 26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약 5억 달러의 수입 초과를 기록하였음.
- 동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80%와 25%를 차지하고 있는 백금과 금 외의 자원 수입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월드컵 개최가 남아공으로 결정되면서 프레토리아-요하네스버그 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등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자본재 수입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3) MIDP(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 남아공 상무부가 자동차산업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 2007년까지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2012년으로 연장되었음.

□ 아시아와 미국과의 교역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은 2003년 12.2%, 금년 상반기 28% 증가하면서 수출비중은 18%에서 24.5%로 높아졌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03년에는 41.7% 증가하였음. 이는 중국의 제조업 부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스테인레스, 철강, 합금철, 알루미늄 등의 비금속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중국의 자동차생산 증가에 따라 자동차부품 수출이 24배 급증하였음.
- 대미 수출액은 2003년에는 13.1%, 금년 상반기 43% 증가하여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⁴) 실행 이후 3년간 72.5% 증가하였음. 백금과 다이아몬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AGOA에 의한 무관세 적용품목인 BMW 등의 완성차 및 부품은 3년간 144% 증가하였음.
- 한국과 남아공의 교역규모는 1999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3년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수출 4억 4천만 달러(85.7% 증가), 수입 4억 5,280만 달러(29.6% 증가)를 기록하였음.
- 남아공의 란드화 강제로 인한 수입확대로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인프라 확대·정비에 따른 프로젝트 진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전문연구원 도 현 철 (☎3779-6676)

E-mail : loki@koreaexim.go.kr

4)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 사하라 아프리카 38개국에 대하여 등록된 품목에 대하여 2008년까지 무관세를 적용하였으며 2004년 7월 AGOA 기한을 2015년까지 연장하는 AGOA3를 발표하였음.